변화의 핵으로 등장한 학생층

시사특집—대통령선거를 맞이하는 학생운동진영

서울캠퍼스

엄마 남자앞은 대선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과 ○ 시대의 화합을 주었인가.

민주정치 수립을 통한 정권교체에서 이 시대의 돌파구를 찾은 학생들이 선봉적으로 실천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단체가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경희대학교 대선운동본부(○○ 대선운동본부)'이다.

대선운동본부의 활동은 크게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과 국민에게 선전하는 것으로 나뉜다. 선거참여와 부정선거 규탄을 통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선봉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대선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행해진 간첩단조작사건에 대한 피켓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운동본부는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활동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된 정치소집회, 대선에 관한 내용을 수험형태로 펴낸 '희망수첩'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대선운동본부에서 행하는 일상적인 사업이다.

정치소집회는 지난 7일 정권교체 가능성과 교육대개혁, 21일 투표참여와 부정선거저지 등의 내용으로 정광민력 본근에서 열렸다. 이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수첩'은 학생·시민들과 임대원로 만나, 정권교체나 민자당 재집권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나눠준다. 일방적 배포보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시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대선운동본부는 아침, 저녁으로 회기동 주민들을 상대로 정치쟁점화된 시건을 신전하고 선거참여를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더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속에서 이번 선거를 낙관하고 있는 대선운동본부내 민주정부 선전단장은 "학생들의 정서나 참여의지가 아주 높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가며 그 어느때보다도 학우들과 함께하는 선거를 이룩하겠습니다"라며 민주정부에의 뜨거운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편, 보수대연합구도의 타파와 민중대통령후보를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토대 구축·보수정치 이 가는 대학내에서 진보세력의 입지 강화를 바라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경희대 대선모임(이하 대선모임)'은 바로 이러한 '보수대 진보의 정세속에서 진보세력의 대안 다련'을 위해 결성된 민중진영의 대선운동 결집체이다.

대선모임은 그동안 학내외 곳곳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대선운동 기간 동안 배가 된 민중대통령후보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후보 마감일인 28일까지 후보추천 서명운동을 학내외 회기지로 젊은 유권자들 표의 향방이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사회에서 대선열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이때 지금 학생사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학생들이 대선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왔다.

대선운동의 밑거름이 될 재정확보를 위해 한책 교환 및 판매, 민중후보 뱃지 판매, 만원 후원단 모집 등의 사업을 펼쳤고, 추천인 서명운동, 진보적녹 판매, 시민학생 대토론회 개최 등의 민중후보 선전 활동과 정치특강, 배기완후보 비디오 상영 등 단위 교양사업도 활발히 진행시켜 왔다.

특히 매주 수요일 정문앞 말모스 백화점앞에서 가졌던 시민·학생 대토론회는 매주 다른 시안을 가지고 시민·학생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발이게 되고, 28일 이후에는 서울지역 학생선거본부와 결합하여 지역 선거본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원캠퍼스

대통령선거가 약 3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 20일부터 는 선거공고와 동시에 각 후보등록을 받고 바로 본격적인 유세작업에 정당과 단체들이 뛰어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전에 많이 우려되었던 불법선거 보다는 그 대학가에서도 선거열풍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거의 모든 대학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준비는 더욱 한층이다.

각 대학별로 각종 여론조사나 모의유세·선거등이 공연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대선을 보는 입장은 크게 범민주단일후보와 민중대통령후보의 두가지로 나뉜다. 범민주단일후보의 경우는 아직 공정선거감시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캠퍼스 경우에는 11월초에 민족자주정의 대선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대대적으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민주단일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아직 후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운동 벌이기는 부정선거 방지와 민민지당 정서 확산을 위한 계기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실시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선거감시단에서는 주로 대국민 캠페인, 부정선거고발센터, 부정선거 신고, 투표참여등의 활동지침을 세우고 있다.

우선은 지난 18일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공정선거실현과 민주정부실현을 위한 알뜰장터'를 개최하고 1만화우 뱃지달기 운동을 벌이면서 공정선거를 실시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으로 쌍 은금이씨 살인사건과 안기부의 간첩사건 폭로를 통해 민민지당 의식을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시민들과 공정선거실시를 위해 함께할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운동본부는 용성총련과 연대하면서 동수원, 신갈, 기흥,성남으로 지역을 나누어 공정선거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민중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는 학생연대에서는 '1만원 후원사업'을 중심으로 대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처음 '1만원계'에서 시작해서 민중대통령선거본부발족 이후 1만원 후원으로 발전한 이 사업은 기존정당의 자력과 금권선거에 맞서 민중스스로 작은 돈으로 모아 선거자금을 모아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학생연대는 경기남부 학생선거대책본부에 속해있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보수야당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고 민중후보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은 중앙선거본부와 같이 콘서트, 21일 있는 대선승리를 향한 결기대회등에 참여하고 학내에서는 민중대통령 추대 지지 촉구대회, 비디오 상영 등을 통해 민중후보를 알리는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은 사회과학력과 뱃지판매를 통한 기금마련과 12월에 있을 백기완후보 유세에 적극 참여하는 것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은 없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서면 선전전·대자보 등을 통해 민중후보를 알리는데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특집부〉

◇ 장충단 공원에서 열렸던 '범민주 단일후보 추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 지난 1일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식에서

학생회선거 마무리 대선투쟁 본격돌입

투표참여·공정선거·민중후보 활동에 주력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이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본교 공명선거 협의회의 활동을 알아본다

'공명선거를 실시합시다'

투표참여 홍보와 감시활동이 중심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12월 18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유세활동이 가열되고 있다.

4반세기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계기로서의 이번 선거는 최초의 정권교체의 미의 수위를 넘어 이땅에 참다운 민주화를 꽃피게 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지 못한 기존 정치권의 행태는 "찍을 단 한 후보가 없다".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선거철 말을 실어져 적극적인 선거참여의 싹을 자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학내에서는 '경희대학교 공명선거 협의회'(이하 공선협)가 구성되어 선거기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공선협은, 학생들을 비롯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함께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어 현재 '경희대 YMCA준비위'와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25대 총학생회장 천은호군이 의장을 맡고 있다.

공선협이 현재 벌이고 있는 활동은 공정감시단 뱃지 착용, 투표참여 스티커 붙이기, 매주 토요일 대시민 거리홍보활동 등이고 선거 1주일전부터는 '금권, 관권 타락선거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 차원의 공선협은 이후 본교노동조합, 의료원 노동조합등 학내 제단체들과 연계, 학내 만연해 있는 선거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재자 투표 요령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단체들과 선전전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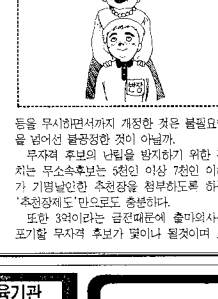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해야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배부되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발송하면 된다. 본교 학생은 각 과, 단대학생회 및 공선협 참여단체에서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학생은 주민등록지 선관위에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 타 학교보다 20일 정도 늦게 제24대 대통령 선거를 맞게 선운동본부(위원장 윤종근 제24대 부총학생회장)를 발족, 지난 18일 서울역앞에서 14대 총선 관권부정선거 규탄 피켓팅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학생회관내에 확성기를 설치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의 당위성을 일반학생들에게 선전할 예정이다.

〈이수정 記者〉

'3억'에 묻힌 대통령후보



학창시절, 학기초는 의례 한 반을 이끌어갈 반장 선출로 분주해진다.

'누가 우리반을 책임질 대표자로 적합한가'

누구나 한번쯤은 '바로 내가 적합한데'라는 생각을 갖곤 했지만 학생들 모두가 반장이 될 기회를 가지는 건 아니었다. 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반장 자격의 기준으로 적용 되었던 조건이 대부분 학업성적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서 기인된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단편적인 기준은 오히려 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반을 이끌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 반장후보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에 대한 자격조건을 보며 자칫 '반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반장 후보선출에 있어서 역효과를 내었던 학창시절의 기억처럼 대선에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특히 3억원을 기탁해야만 대통령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탁금제도'는 그러한 우려를 증가시킨다.

'기탁금제도'를 입법화한 취지가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막겠다는데 있다지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67조 제4항의 대통령 피선거권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개정한 것은 불평요함을 넘어선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무소속후보는 5천인 이상 7천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하는 '추천장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3억이라는 금전때문에 출마의사를 포기할 무자격 후보가 몇이나 될것이며 오히려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자격 있는 후보의 출마를 힘겹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염려된다.

13대 대통령 선거때보다 3배나 높아진 3억원이라는 기탁금은 기성제도 정치권내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중대통령후보 진영에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선거는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선거는 몇몇 정치인만의 잔치속독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속에서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기탁금의 액수를 올려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막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진정 무자격한 후보가 누구이며 반드시 필요로 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으로써 후보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
본원은 국내 최초의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임
개원 25주년 개강 : 매월초
정규 및 특별과정
●정보처리전문과정 ●기사자격 취득과정
●OA-1(MS-DOS, WP, BASIC) ●방통중 각 교육 캠퍼선택
●OA-2(dB, 폭스, 파키지) ●정보처리기사 종합특강
●C언어-1,2(PC, 대형실습) ●여성 OA 취업과정
정보처리기사(1.2급)종합특강
●일시 : 1, 4~1, 30 19:00~21:30(1급), 14:00~16:30(2급), 토,일요
●특징 : 출제유경험 각대학교 전산학과 교수진보강, 모의고사
C언어과정(2개월)
●시간 : 16 : 00~12 : 00, 14 : 00~16 : 00, 19 : 30~21 : 30
●특징 : 실무 및 기사시험대비전문강사진, PC실습 및 대형실습
OA고급과정
●40MB 하드 활용 dBASE, LOTUS, 패키지사용법 완성
●6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본원OA과정의 전통, 전문화
최신 대형컴퓨터설치 입체교육
●MV-15000 S-8 및 IBM OS F/4000 대형컴퓨터
●대형통제터미널 및 PC 300여대 전용실습
개원 제25주년 300기 기념강좌
대학생 여러분들의 내일건학상담 환영 / 원장 정남식
■본원은 교육목적상 본원을 안두며 대한컴퓨터학원의 명칭변경, 학학개정전문화로 시설확장 및 혁신
■위 치 : 파고다공원건너편 종로2가 네거리(통화권발급)
■상담실 : 274-6911~5(냉난방완비)
대한컴퓨터학원
대희정보처리학원

출간 10일만에 베스트셀러
·태평서적 1위
·신촌문고 5위
·을지서적 9위
블랙의 詩
이것은 시집이 아닙니다
소설은 더욱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고귀한 자존심입니다!
「저자—임 유 민」
도서출판 한국용
전 화 : 928—6895
FAX : 929 : 5016
*본문은 시집에서 구입하십시오.

TOEFL 600
오전반 : 9 : 40—12 : 40
저녁반 : 7 : 00— 9 : 50
(실전반)
G R E 2000
오후반 : 2 : 00—4 : 00
저녁반 : 7 : 00—9 : 00
GMAT 700
저녁반 : 7 : 00—9 : 00
M.A ENGLISH
대학원진학종합반
저녁반 : 6 : 30— 9 : 30
통역대학원입시반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734-2442
서울영어학원
시사영어사

국내 최대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
컴퓨터
전산요원 수강생 모집
◎개강 : 12월 1일(화), 1월 4일(월) 현재접수중(공휴일도 접수함)

과정	기간	교육내용
정보처리 전문과정	총8개월	전산학 개론 및 GW-BASIC, FORTRAN-77, STRUCTURED COBOL-I·II, C 언어 응용 패키지, 자료구조 및 통계, ASSEMBLY 8개월 교육으로 정보처리기사 완전 MASTER
여성 OA 취업과정	4개월	PC 개론, MS/DOS, 워드프로세스(한글) LOTUS 1-2-3, DBASE Ⅲ PLUS PC-TOOLS, 키punch : 초급에서 실무까지 완성. W/P자격증 1,2,3급 취득, 전산요원취업 97%
C A D 속성과정	8주	AUTO CAD (RELEASE 11), AUTOFLIX AUTOSHADE, DELUXE PAINT, SPLASH
국가기술 자격특강	1개월	정보처리기사 1,2급, 기능사 1,2급, W/P 필기, 실기 자격취득률보장 : 과년도 91% 합격. 본원 지술 기술및 여술 문제풀이
W/P 검정 및 OA 속성과정	2개월	PC개론, LOTUS 1-2-3, MS-DOS, DBASE-Ⅲ PLUS, W/P (한글) 2개월 교육으로 컴퓨터 응용인력 PC전문가가 됩니다.

※ 모든 교육과정중 1개월 이후도 선택수강가능
■교육은선생님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보자 상담 적극환영)
■수료후 취업희망자 진원 취업추천
■전산독학자, 전문대특별전형 전산병및 특례보충학업대학
■정보처리전문, 여성 OA, 사무자동화과정 교재무료지급
■방과후 1인 1대 FULL DAY 자유실습, 전일등학생발급
◎문의전화 : 538-7011~6, FAX:556-7339
◎위 치 : 강남 전철역 뉴욕제과점 대동빌딩뒤
OCI(재학생 졸업생이 추천하는 동양전산전문학원)
동양정보처리학원

운전을 배웁시다
24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1)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2) 탁아소 무료 운영
(3)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4)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5) 실습시간 자유선택
(6)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 매주 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